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일체만법 자기가 들이고 내고 합니다

생활이 참선이라는 뜻

문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고 말기는 것 외에는 다른 수행방법을 강조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선이 좋은 수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활이 곧 참선이다 하는데 과연 생활 중에 모든 언행을 곧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얼른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곧 참선이라는 스님 말씀의 참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저 평상시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건데, 처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죠. 일상생활의 일거일동 말입니다. 이 세상이 형성된 것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 전체를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죠. 자기가 내고 하는 것을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앉아도 참선이요, 서도 참선이요, 누워도 참선이요, 또 일을 해도 참선이니, 행선·와선·입선·좌선을 한데 합쳐서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소립니다. 일일이 참선이다, 참선이 아니다 따지지 말고, 일상생활 모든 걸 내 마음속에서 하며 들이고 내는 것이 한마음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믿고 놓으며 돌아가면 이것저것 따로따로 챙길 것 없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그렇게 놓는 반면에 지켜보고 관하는 겁니다.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뭐 별 다른 게 참선이 아닙니다. 일일이 다가오는 거 그저 거기다 맡겨놓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다 사고가 난 걸 보았는데, 차가 망가져도 운전수 탓이요, 차를 받쳐도 운전수 탓이지, 차를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더라구요. 차 운전수 붙들고 야단이죠. 안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운전수, 그 운전수가 모든 걸 해나가는 것이니, 운전수에다 모든 걸 한데 모아서 맡겨놓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너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너만이 할 수 있어. 가고 오고 하는 것도 다 너만이 알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으며 이끌어갈 수 있어' 하는 것이죠.

앉아도 참선 서도 참선
누워도 참선 일해도 참선
행선·와선·입선·좌선
한데 합쳐 생활하는
그 자체가 참선이죠

오가는 인연 걸리지 않으려면…

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여여하게 자유인으로 생활한다는 뜻으로 사려되옵니다만 그렇다면 마구니가 온다해도 막지 않고 부처가 간다해도 붙잡지 않는 것인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답 우리가 수행을 할려면요, 가는 것 일부러 좇아가서 잡고 이러기보다는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고, 하다 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꿀꺽 삼킬 수 있고, 또는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꿀꺽 삼킬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이 도리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는 이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 안되며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 법석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도중에, 수행자는 그렇다 이겁니다.

주인공을 상대로 보게 됩니다

문 주인공 당신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관하는 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공'을 자주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게 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그러게 누가 상대를 두고 '주인공 해주시오' 하라고 했습니까. '네 몸뚱이 고장 났으면 네가 고쳐서 끌고 가라' 고 놓고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해결해' 그러고 놓으라고 그랬고, '네가 벌려놓은 거니까 네가 수습해' 하고 놓으라고 그랬죠. 그것은 마음없는 마음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둘로 보지 마세요. 주인공하고 상대를 놓고 해달라고 한다면 아니됩니다. 그것은 벌써 잘못 들어가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이 만든것도 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너니까 네가 건강하게 끌고 다녀라,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장난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둘로 보지 마시라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드렸습니다.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를 하고, 형성을 해서 모든 게 돌아온 이 자체를 볼 때에 헤어졌으면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부모가 됐을때 자식이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것이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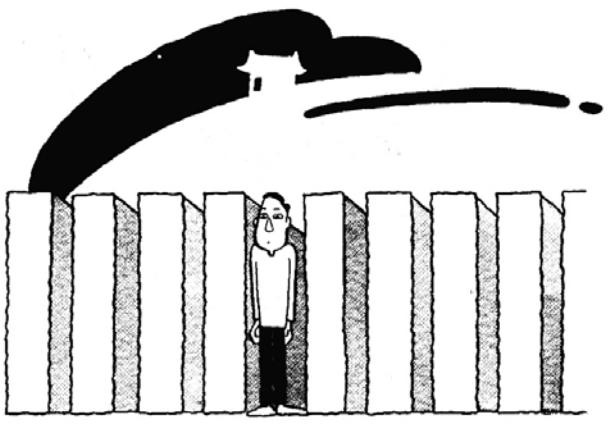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 운전수에 다 맡겨놓고 지켜보세요
수행자는 가고오는 인연 걸리지 말아야

꿈을 너무 많이 꿉니다

문 저는 수원에 사는 불자입니다.

늘 부처님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새기며 그렇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꿈을 많이 꿉니다. 별 이상한 경계, 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꿈에 보이는지요. 생전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던 영혼들, 애,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보이고 제 주위를 몰려다닙니다.

어떤 염불, 어떤 마음을 내면 이 많은 영혼 귀신들을 떼어내겠습니까?

그리고, 제 남편은 착하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 관계의 쇼크로 간혹 술을 마신 후면 땅 밑바닥까지 훤히 보이고, 평소 눈 시력이 마이너스인데도 안경 벗고 문꼬리 꽃모양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가끔 이상한 행동도 합니다. 스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답 꿈에 보이는 갖가지 현상에 대해 일일히 이렇다 저렇다 따질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꿈이지요. 생시도 꿈, 꿈도 꿈입니다. 본래는 그게 다 과거 생으로부터 찰나 전까지 내가 입력시켜 놓았던게 풀려나오는 것이니 나오는 대로 놓고가라, 놓았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떼어내고 싶다하시는데 실체가 없는것을 떼어내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정히 마음에 걸린다면 좋게 한생각 돌려 버리세요. 모두 다 나를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구나. 알았다 오바! 하고 말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기해 하거나 두려워 할일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생각에 매어달린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놓아버리세요.

외롭다는 생각에 살기 싫어요

문 금왕 지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저의 시기심, 그리고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걸 보면 정말 외롭다는 생각에 살기가 싫어집니다. 모든것이 주인공이 하는것이니 니가 알아서 하라고 생각하고 가끔 생각합니다. 정성부족인지 몰라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잡을수 있는 법을 듣고 싶습니다.

답 믿고 놓는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바라고 자신이 생각한대로 되어지지를 기대하면서 놓는다면 그건 진정으로 놓은게 아닙니다. 놓는데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잘 놓아지질 않는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스승 아닌게 하나도 없으니 그들이 모두 내 스승이요, 스승으로서 나를 가르치는구나 하고 한생각 고쳐 먹는거 말입니다. 사실 모든 경계는 설사 내게 고통을 준다해도 그건 고통이기 이전에 나를 성숙케하는 공부재료 입니다.

'독존' 이라는 말 궁금합니다

문 인간은 다 각자가 독존이라는데 그 독존이라는 개념이 각자에게 불성이 있어서 독존이라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떤분이 독존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분이라는데 저는 그말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존은 각자가 자기 본성을 발견하여 임의적인 의식없이 모든 일이 그냥 되어가는 자체에도 독존이라는 개념이 성립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모든 중생은 다 부처될 자격을 갖고 있어 평등합니다.

높다 낮다 할게 없습니다. 다같은 물성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가도 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광대하게 벌어져 있다해도 내가 없으면 우주가 다 뭡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우주가 있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요. 그러기에 나로부터 우주가 벌어졌노라, 내가 우주의 중심이니 어찌 독존이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고 합니다. 나부터 알아야 모두를 알 수 있고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고서는 알았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또 독존이지요.

마음을 자주 놓칩니다

문 저는 부산에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마음을 잡아도 놓치고 또한 잡았다가도 곧 흘려버리니 한마음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잠에 떨어지면 곧 무명에 휩싸여 오매일여하지 못하니 수행에 진척이 없는가 합니다.

제 마음잡기에 큰 도움이 될만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5

부처님 형상에만 공양할 줄 안다면…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부처 형상만 공양할 줄 알았지 자기부터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불자로서 부처님 잘 모시겠다고 하며 역으로 부처님을 욕되게 한다면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콩 한쪽을 부처님 전에 놓을 수 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주인공에 모든 걸 종합해서 공한 도리로 함이 없이 놓았다면 우주 전체의 일체 유생 무생이 다 먹고도 그 콩 한쪽은 다시 남아서 또 먹을 수 있다. 부처님 전에 돈을 놓지 못했다, 공양을 넉넉히 올리지 못했다 해서 개운치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은 남보다 많이 놓았다 해서 든든하다 할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 놓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향 한 개를 꽂아도 그 향기가 우주를 다 쌀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게 정화수 떠 놓고, 내게 돈 놓고, 내게 공양 올리라고 가르친게 아니다.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빌어야 나 잘되고 가족 잘되는 줄 안다면 그것은 정말 부처님 법을 모르고 죄업을 잔뜩 짊어지는 게 된다.

많은 불자들이 '판세음 보살' 을 염송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가슴에는 불을 켜지 않고 바깥으로만 불을 켜려 하니 밝아지질 않는다. 본래로 밝은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기를 제도하고 주변을 윤택케 할 것인가.

경배는 주인공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만이 독경을 해도 그 독경 소리가 삼라 대천 세계에 모두 퍼지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경을 읊조리면 불보살께서 들이시고 온 누리에 두루 퍼지게 된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닌 마음으로 경을 읽고 주를 송할 때 진정한 공덕이 그 속에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 그저 주는 주고 송은 송일 뿐이다. 그 깊은 이치를 모른 채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외고 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망에는 그 정성이 걸리지 않고 그저 자기나 들을 뿐이다. 반야심경을 외울 때나 천수경을 외울 때면 우리는 찰나찰나 여여하게 돌아가는 유위법과 무위법을 외우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 법을 따라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옴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잊지 않고 꼭 해야만 염불인 줄 아는데 세울 게 없는 사람에게는 한생각이 곧 염불이 될 수 있다. 한생각이 그대로 활용이요, 그대로 법륜이니 어찌 그 법을 어기고 입으로 외워야만 맞는다 하겠는가.

지극한 정성으로 불을 켠다면 그 불은 우주와 더불어, 내 마음과 더불어 하나로 합쳐서 항상 켜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로 인등을 켜야 한다 하고, 석달 열흘 그렇게 밝혀야 한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인등이 아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마음의 불을 켜면 항상 인등을 켜 놓은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인등이다. 마음이 밝아야 항상 밝은 것이니 인 등을 켜 놓았다고 밝아진 것은 아니다.

인등을 백일 간 켠다, 천일 간 켠다 하는데 이 지구가, 아니 우주가 백 일만 돌아가나, 천 일만 돌아가나? 또 우리는 백 일만 밝게 살것인가, 천 일만 밝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일 초도 머무름이 없이 항상 불을 켜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인등을 켠다, 안 켠다 하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

식구 숫자대로 인등을 켜 놓고 잘 되기를 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찌 불 켜 놓은 것이라 하겠는가. 불은 이미 자나 깨나 마음의 불로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켰다가 꺼지는 그 불로 정성을 들인다고 하니 그 불 꺼지고 나면 그 후로는 그만 빌고 그만 살겠다는 것인가.

법당에 촛불을 천 개 밝히는 것이 마음에 촛불을 한 번 밝히는 것만 못할 수가 있다. 마음의 불을 켜면 우주 전체가 알지만 촛불을 촛불로만 켜면 그 켜는 곳에서밖에 모른다.

잘되고 잘못되고, 좋고 나쁘고가 전부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 주인공에게 '잘되게 해 주시오' 하는 게 아니다. 일체가 그 자리라 일심이 만법으로 나고 만법이 일심으로 드니 함이 없이 하는 것이지 둘로 보아 '해 주시오.' 하는 게 아니다.

마음 한 번 내면 일체 제불이 다 아는 것이라 따로 법당이 없고 기도처가 없으니 생활 가운데서 일체를 평등하게 보고 진실하게 관한다면 생활이 그대로 기도요 수행인 것이다.

내 안에 관세음 보살이 있다. 예수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알아서 주장자 하나 탁 던질 때 어디에고 적응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협찬: 주인공